

<2020년 5월 10일 주일예배>

주제 : 실천의 권세와 능력

본문 : 누가복음 6장 46-49절

<전초>

주의 말씀이 가장 큰 권세라면 주가 보여주시는 실천이 또 다른 권세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행하니 완전하게 행해 왔습니다. 듣기엔 달지만 행하기엔 쓴 말씀입니다. 행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행했기 때문에 길이길이 남겨지게 해 놓았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2가지다. 첫째는 해라, 둘째는 하지마라.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다. 무엇이든 실천하는 자만이 됩니다.

<R>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실천하지 않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오기까지 사명자로서 했는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 주를 알았으면 주의 말을 생명이시고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비오고 홍수나면 쓰러지는 자와 같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도 알고 말씀도 알고 귀히 여기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는 자와 같아 비가와도 홍수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자와 집과 같다. 책망하는 말은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잘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는 6장 앞에 해줬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저들이 모르니까 성전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은 이미 줬으니 실천하라. 확인해보라. 실천해보면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일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능력이 계속 일어나요. 실천해야 권세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자녀로 삼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고 실력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일하는 거 보면 세력을 알 수 있어요. 세력도 다 주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처럼 그를 믿고 따라야 그 권세를 줍니다. 그러므로 주로 말미암아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말씀 지켜서 회개하고 지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나옵니다. 구약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라 이런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메시아를 맞고 따르면 이런 권세가 생기죠. 메시아로부터 권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죄의 권세는 메시아한테만 있어요. 죄를 사하는 건 메시아만 할 수 있어요. 지옥은 죄가 많아서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황금천국 휴거를 할 수 없다. 죄 사할 권세는 자기한테 없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이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했어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너희 이름으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예수님께겐 심판하는 권세가 있었어요. 육을 죽이는 자들만 두려워하지 마라. 육과 영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를 두려워하라.